법화종, 안정사서 법계품수…총본산 위상회복

11월 25일 제19회 법계품서식 봉행
도선 스님 전계대화상…118명 대상
대종사 송현·공명·암현 등 스님
"본산 안정사 정상화 대내외 천명"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화종은 11월 25일 통영 안정사에서 제19회 법계품수 및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법계고시를 통과한 전국교구 118명이 새 법계를 품수했다.

오랜 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이 총본산 안정사에서 118명 스님을 대상으로 대규모 법계품수식을 거행해 주목된다. 이번 법석은 전국교구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종단 정상화를 대내외로 천명하고 미래를 다지는 초석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안정사는 그동안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만큼, 안정사에서 봉행된 이번 법계품서식을 총본산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11월 25일 통영 안정사(주지 원담)에서 제19회 법계품수 및 가사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법계고시를 통과한 전국교구 118명이 새 법계를 품수했다. 특히 마산교구 송현 스님, 경주교구 공명 스님, 강원교구 암현 스님, 경북교구 도광 스님·법원 스님 5명이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반열에 올랐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에 앞서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날 법석의 의미를 전했다. 스님은 "오늘 법석은 안정사가 우리 종단의 총본산임을 종도 모두에게 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총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회복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종단 차원이 통일 가사불사를 통해 종단 정체성을 되찾고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종단 모습을 일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계품서식은 종정 도선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은 가운데 원로의장 보명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원로부의장 근파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원로의원 스님들을 존증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법계품수자 118명은 지난 9~10월 전국교구에서 일제히 시행된 법계고시를 통해 승급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최고법계인 대종사에 5명 원로스님이 선정됐다. 대종사 승급자들에게는 법계증, 가사와 함께 불자가 수여됐다. 종사법계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한 19명, 승정법계는 31명, 대법법계는 30명, 중법법계는 22명, 선법법계는 11명에 품수됐다.

종정 도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계품수자들에게 '오종법사(五種法師, 받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겨 쓰는 법사)'를 수행의 귀감으로 수지토록 설한 데 이어, 전 종도들에게 "모두가 종단의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간곡한 당부를 전했다.

도선 스님은 "우리 종단 총본산인 안정사를 잃을 심각한 위기 속에서 몇 명의 소임자 스님들이 치열한 노력으로 이를 되돌려 오늘 법석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종단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임자 일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기둥이 적으면 작은 혼란에도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기둥이 많으면 어떠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에,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기둥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가리고 감추어도 썩어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어느 것이 참인지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원로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들,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은 가리고 감추기보다 썩어있는 부분을 고치고 바로잡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원로는 원로대로, 종회는 종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본분을 찾고 이에 충실하면서 원융살림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원로의장 보명 스님도 이날 법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스님은 "1년 전만해도 안정사에서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법석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더욱 감개무량하다.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법계품서식은 물론, 영원히 안정사에서 종단행사를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며 "오늘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인천의 스승으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뿐 아니라 종단 화합과 원융살림을 열어가기 위한 법화행자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13대 회장에 정문섭 회장취임
봉사활동 위한 밥차 전달식도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13대 회장에 취임한 정문섭 회장이 총동문회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정문섭)는 11월 25일 진주 시청 앞 제이스퀘어호텔 4층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또한 동문들의 힘으로 마련한 밥차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불교대학학장 무애사 성공 스님, 대광사 상전 스님, 여적암 종민 스님, 정문식 회장, 김진곤 前 회장,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양혜영 진주의회의장, 강종용·허종도 부학장, 자문위원, 백정민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불교대학회원 및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13대 회장에 취임하는 정문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들의 뜻을 잘 받들어 진주불교대학의 활성화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총동문회가 되겠다"며 "진주불교대학이 명실상부한 지역 재가불자들의 요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주불교대학장 성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동문·도반님들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진주불교대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공 스님은 정문섭 회장에게 당선증과 함께 동문들이 마련한 무료급식밥차의 열쇠를 전달했으며 김진곤 전임 회장은 정문섭 신임 회장에게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무료급식밥차는 2021년 10월 30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무료급식밥차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후원금과 진주 무애사 성공 스님, 불교대학동문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무료급식밥차는 오는 12월부터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서 허종도, 강도용 불자가 진주불교대학 부학장 임명장을 받았으며, 백정민 불자가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2023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주요임원은 회장 정문섭, 부회장 박중선, 부회장 강정숙, 사무국장 백정민, 자문위원 최현주, 자문위원 백수연, 자문위원 진달수 등 40여 명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이태원 참사 천도재

"모두의 어리석음으로 젊은 목숨 잃어" 개탄


울주군 정토마을 간월사가 11월 25일부터 3일간 아미타염불집중수행법회를 봉행했다. 염불수행중인 26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정토마을 공경전에서 봉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는 자재병원 원장 능행 스님, 지안 스님, 도우 스님, 경덕 스님, 동심 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능행 스님은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죽음을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개탄하고 이 꽃보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 동참한 염불수행자들은 모두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 후에는 능행 스님과 염불수행자들과의 문답도 진행됐다. 능행 스님은 집에서의 제사와 관련한 질문에 "집에서의 제사는 음식보다는 법성게, 무상게, 금강경, 아미타경 등 경전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공덕제 불자는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천도재를 지극하게 지내주신 원장스님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능행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토마을요양병원은 정토자재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김장김치 나눔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1020kg 전달


전북 진안의 자비실천 도량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진안 쌍봉사는 11월 26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열린 김장김치 나눔에는 쌍봉사 신도회(회장 장미선), 섬김봉사단, 만복의 소리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했다.

쌍봉사에 집결한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백김치에 들어갈 재료손질과 절임배추를 준비하고 채소를 다듬고 양념을 준비했다. 김장김치를 포장하고 배분하는 작업까지 마친 봉사자들은 배정받은 각 가정에 직접 배달까지 마무리한 후 봉사활동을 마쳤다.

진안 지역 100가구에 전달된 김장김치는 모두 백김치 1020kg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맞이한 어려운 이웃한 가구당 10kg씩이 전달됐다. 또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영양찰밥 100개를 김장김치와 함께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렇게 김장김치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다. 자원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김장김치를 받으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지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미선 쌍봉사 신도회장은 "쌍봉사 불자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어르신들이 드시고 행복한 겨울 지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동문장학회 종립학교에 장학금 보시

장학생 72명에 장학증서 전달
해인사승가대 교수연구비 지원도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스님, 이하 장학회)가 종립학교와 해인승가대학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는 11월 28일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법당 환희원에서 광동고등학교 이준우 학생 등 종립학교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종립학교 장학생으로 선정된 광동중학교 3명, 광동고등학교 3명, 의정부광동고등학교 3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영석고등학교 6명, 총 15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50만원, 총 750만 원을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인동문장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한 장학금은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 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기부금"이라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 여러분들은 해인동문 스님들의 정성을 가슴에 새겨 학업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라며, 지역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열린 '2022년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과 동국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장학생 29명, 해인사승가대학 졸업학생 2명, 동국대 및 대학원 외 장학생 26명에게 장학증서와 4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해인사승가대학 교수연구비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망운사 성각 스님 선서화전 개막


국내 유일의 선화(禪畵) 부문 무형문화재(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선화 보유자)이며 절제된 담묵과 담필로 깨달음을 전하는 남해 망운사 성각 스님의 선서화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11월 27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남해유배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성각 스님 선서화전은 2022년 남해방문의 해 기념행사로 기획됐다.

11월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쌍계사본말사 주지연합회장 이암 스님, 13교구 말사 주지스님 및 지역스님,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남해군의회 의장, 이성권 부산경제부시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오상 KNN대표이사, 탤런트 전원주, 코미디언 심형래 씨와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획초대전에는 선재동자(善財童子), 보리달마(菩提達摩) 등 형상화된 소재들을 비롯해 '도피안(到彼岸)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가는 길'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과 공안을 그림으로 표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묵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은 물론 망운산에 기거하며 자연과 나눈 사계절의 교감들,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미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낸 선서화들이 전시됐다.

성각 스님은 "40여 회에 이르는 선서화 전시회는 베품과 나눔의 이정표가 되었고 수행의 삶을 일깨우며 때론 많은 분들에게 삶의 속진 번뇌를 해탈로서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발원해왔다"며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마무리하며 소승의 작품들을 여러 사부대중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다"고 밝혔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의 깨달음을 시로 읊으면 게송이 되고 글로 쓰면 선서가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선화가 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고요한 마음속에 평안을 찾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발돋움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동안거 포살법회·교구종회 개최

매월 본말사 대중스님 정진키로
12월 11일 불교환경연대 출범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가 불기 2566년 임인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제3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11월 29일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포살법회에서 포살법사로 등단한 일원 스님이 대중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 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강조했다.

일원 스님은 "포살법회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안거기간 동안 수행자의 자리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설법전에서는 17교구 교구종회가 개최됐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2022년도 말사 행정지도감사의 건과 불기2567년도 예산계획안의 심의에 이어 금산사 대중화합 정진의 건, 뮤지컬 싯다르타 공연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회의에서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은 안거철에는 매월 음력 20일마다 금산사에 모여 염불, 간경, 참선 등 삼문정진하고 산철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종단연수프로그램, 경전강의 등의 정진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일원 스님은 익산 정각사 일행 스님, 익산 법성상 혜민 스님, 남원 운지사 용담스님에게 총무원장을 대신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기타토의에서는 전북불교환경연대 창립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17교구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24교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안 스님과의 회동을 통해 불교환경연대 출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2월 11일 수현사 3층 법당에서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나눔 행사 개최



광주 최고의 '나눔도량'으로 불리는 소원정사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통 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1월 30일 사찰 앞에서 5200여만 원에 상당하는 자비의 쌀과 겨울 의류, 승보공양 기금을 전달했다.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주목받는 소원정사는 이날 백미 12000kg, 겨울용 패딩 100벌, 어려운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 승보공양 기금 550만 원을 남구청(백미 300kg), 동구청(백미 300kg), 북구청(300kg), 자비신행회(300kg, 겨울패딩 100벌),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550만원)에 각각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장학금 전달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종무원장 월인)은 11월 2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에 장학금 800만 원을 전달했다.

서구청 2층 들불홀에서 개최한 전달식은 월인 스님, 재무국장 명휴 스님, 종회의원 영휴 스님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윤풍식 서구장학재단 이사장, 고경애 서구의회 의장, 장학금 수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성적우수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